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 Blind Side>에 나타난 '드라마' 장르의 미국 문화 특성*

한용택** · 우정권***

I. 서론

1895년 12월 28일, 형제인 오귀스트 뤼미에르와 루이 뤼미에르는 파리의 그랑 카페 지하 살롱에서 대중을 상대로 <기차의 도착>¹⁾, <뤼미에르 공장의 출구>, <물 뿌리는 정원사> 등 10 편의 활동사진을 상영한다. 이후 영화는 예술과 산업의 두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고, 독보적이고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예술의 영역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서사 양식으로 서, 19세기와 20세기의 대표적 서사 양식인 소설의 영역을 대체할 만한 위상을 가지게 되고, 산업의 분야에서는, 문화산업의 부각과 맞물려, 대중문화산업의 선봉에 위치하게 된다. 하지만 현상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영화의 순수한 예술성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왜소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할리우드가 세계의 영화 시장을 주도하고, 매스미디어어의 역할이 소비자의 판단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1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 제1저자, 단국대학교 스토리텔링연구센터 연구원.

*** 교신전자 및 공동저자,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교수.

1) 영화 제목의 경우, 인쇄물과 구분하기 위해 『』 대신에 <>를 사용함.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배급사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현재 시스템에서 영화는 산업적 측면이 매우 강하게 강조된다. 새로운 영화가 제작되거나 개봉될 때 의례히 뒤따르는 기사의 내용은 제작비와 수익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개봉 후 매주 집계되는 박스오피스에서 주목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게으른 관객에게는 극장에서 시청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상업영화, 특히 전 세계적 흥행을 노리는 할리우드 중심의 영화는 흥행성, 전형성, 관습성, 친숙성 등으로 설명되는 하나의 거대한 ‘장르영화’이다.²⁾ ‘장르영화’에서는 패턴의 반복에 따른 익숙함이 중요하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패턴의 반복이 “나중에 제작되는 비슷한 종류의 영화 흥행에 대해서 일정한 보증”³⁾이 되기 때문이며, 관객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부담 없는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관객들은 영화를, 특히 흥행을 목적으로 제작된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건 폭설이 내리건 간에 외부와 차단되어 고립된 극장의 상영실 안에서는 현실을 잊고 영화에 몰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객의 정서일 것이다. 그러려면 관람하는 영화의 내용과 형식이 세부적인 면에서는 낯설어도 전체적인 패턴은 어느 정도 익숙해야 한다. 지나친 낯설음은 생각을 부르고, 생각과 사고는 몰입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할리우드 영화가 하나의 거대한 ‘장르영화’라고 해서, 할리우드에서 제작되어 전 세계로 배급되는 영화들이 각 나라의 관객들에게 한결같은 반응을 얻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영화가 갖는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다. 좋지 않은 작품이기에 반응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2) 장르영화에 대해서는 이용관, 김지석, 『할리우드: 할리우드 영화의 산업과 이데올로기』, 서울, 제3문화사, 1992, p.125 및 서성식, 「할리우드 장르영화의 진화 관점에서 본 영화 아바타」, 『영상영어교육』(STEM journal), 11/2, 2010, p.99 참조. 이들에 따르면 장르영화는 “약간의 변형을 가한 채 동일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반복되는 영화, 즉 동일한 기본 패턴과 기본 요소(세팅, 등장인물, 플롯, 기본적 영상, 영화테크닉, 컨벤션) 등이 마치 자동차의 기본 모델이 해마다 약간씩 변형되듯이 동일한 장르 내에서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화이다.

3) 서성식, 위의 글, p.99.

적어도 완성도 측면에서는 좋은 작품이라고 이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에 따라 수용자 호응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작품성과는 별개로 어떤 영화들은 지역과 문화에 상관없이 유사한 흥행을 보이는 반면, 또 다른 영화들은 지역과 문화에 따라 흥행 성적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초문화적, 초국가적 성격이 강한 영화가 있는가 하면, 특정 문화권, 특정 집단의 관객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영화도 있다. 크게 보아서는 익숙한 패턴이지만 그 익숙함에는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 개념에 의해서도 설명된다. 할리우드 영화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미국 외의 국가에서 소비될 때는, 해당 영화의 해독에 필요한 문화적 지식 등의 부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⁴⁾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진 영화들은 문화할인율이 적어, 흥행이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미국의 특수한 문화적 정서를 반영한 영화는 그것을 수용하는 문화집단의 성격에 따라 문화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문화적 할인은 문화상품이 다른 문화권으로 진입할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저평가 현상의 국가별 비교를 전제로 발전한 개념이다. 하지만 이 개념은 특정 영화들이 또는 특정 장르의 영화들이 동일한 문화집단에서 다르게 수용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에 적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할리우드의 특정 장르들, 예컨대 액션, 어드벤처, 판타지, SF 같은 장르는 세계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특정 국가에서의 흥행이 미국 또는 전 세계의 흥행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드라마, 코미디 같은 장르에 속하는 영화들은 세계를 기준으로 한 흥행이 미국에서의 흥행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른바 문화할인율이 큰 영화들인 것이다. www.boxofficemojo.com의 통계가 이러한 현상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준다. 애니메이션을 제외했을 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역대(All Time) 흥행 상위 100위에 속하는 영화들 대부분은 액션, 어드벤처, 판타지, SF에 속한다.⁵⁾ 상위 100위까지의 영화들 가운데, 위의 장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4) 이양환 외, 「국가 간 영화흥행요인 비교를 위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7, 2007. pp.190-197.

5) <http://www.boxofficemojo.com/alltime/world/>. 이 글에서 인용된 영화별 흥행

영화는 39위의 〈The Da Vinci Code〉, 44, 46, 47위의 〈The Twilight Saga〉 시리즈, 48위 〈Forrest Gump〉, 63위 〈Mamma Mia!〉, 89위 〈Meet the Fockers〉, 97위 〈Angers and Demons〉 정도이다. 〈The Da Vinci Code〉를 박스오피스모조는 스릴러로, IMDB⁶⁾는 미스터리, 스릴러로 분류하고 있으며, 〈The Twilight Saga〉 시리즈를 박스오피스모조는 로맨스로 IMDB는 어드벤처, 드라마, 판타지로 분류한다. 〈Forrest Gump〉를 박스오피스모조는 드라마로, IMDB는 코미디, 드라마, 로맨스로 분류하며, 〈Mamma Mia!〉를 박스오피스모조는 뮤지컬, IMDB는 코미디, 뮤지컬, 로맨스로 분류한다. 〈Meet the Fockers〉는 박스오피스모조에 따르면 코미디로, IMDB에 따르면 코미디, 로맨스로 분류되며, 〈Angers and Demons〉는 박스오피스모조에 따르면 스릴러, IMDB에 따르면 미스터리, 스릴러로 분류된다. 장르에 대한 구분이 아직까지 엄정하고 통일된 규칙에 의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임의적이고 자의적임을 감안하더라도, 순수하게 액션, 어드벤처, 판타지, SF에 속하지 않는 영화는 매우 드문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IMDB가 판타지 장르로 분류하기도 하는 〈The Twilight Saga〉 시리즈 3편과 특별한 장르적 특성을 가진 뮤지컬 〈Mamma Mia!〉를 제외하면, 〈The Da Vinci Code〉(2006), 〈Forrest Gump〉(1994), 〈Meet the Fockers〉(2004), 〈Angers and Demons〉(2009) 네 편만 남는다. 이 중에서 경향을 살피기 위해 최근 5년, 그러니까 2007년 이후 개봉된 영화만 대상을 한정한다면, 〈Angers and Demons〉만이 유일하게

및 수익률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사이트를 참조한다. 참고로 1위부터 20위까지의 순위를 순서대로 보면, 〈Avatar〉, 〈Titanic〉,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Part 2〉, 〈Transformers: Dark of the Moon〉, 〈The Lord of the Rings: The Return of the King〉, 〈Pirates of the Caribbean: Dead Man's Chest〉, 〈Toy Story 3〉, 〈Pirates of the Caribbean: On Stranger Tides〉, 〈Alice in Wonderland〉, 〈The Dark Knight〉, 〈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Star Wars: Episode I - The Phantom Menace〉, 〈Pirates of the Caribbean: At World's End〉,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Part 1〉, 〈The Lion King〉,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The Lord of the Rings: The Two Towers〉, 〈Shrek 2〉, 〈Jurassic Park〉이다.

6) <http://www.imdb.com/>.

앞에서 말한 장르에 속하지 않게 된다. 결국 최근 5년 간 전 세계에서 개봉된 영화 가운데 적어도 흥행 성적 상위에 속하는 영화들 중에 코미디 장르나 드라마 장르에 속하는 영화는 한 편도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얼핏 보아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막대한 제작비와 화려한 CG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점을 가진 할리우드의 최근의 영화 제작 경향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국내에 한정된 흥행 성적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박스오피스모조에서 미국 국내 흥행 상위 영화 100편에는, 전 세계 대상 흥행 영화와 겹치는 영화 외에도, <The Passion of the Christ>(2004), <Home Alone>(1990), <Cast away>(2000), <The Hangover>(2009), <The Hangover II>(2011), <The Blind Side>(2009) 등 순수하게 드라마, 코미디 장르에 속하는 영화들이 꽤 보인다. 순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The Passion of the Christ>는 17위를, <Home alone>은 48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의 경향만 보더라도 <The Blind Side>와 <Hangover>가 최근 5년 동안 개봉된 영화들 가운데 순위 100위 안에 올랐으며, 특히 52위 <Hangover>는 속편이 제작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고, 속편 또한 62위에 올라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국내 영화시장의 정서가 세계 영화시장의 정서와 일치되지 않음을 보여 주며, 세계의 관객들이 할리우드의 코미디나 드라마 장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블록버스터급 영화들과는 다르게 인색한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미국 외의 영화 시장에서 코미디 또는 드라마 장르에 속하는 할리우드 영화들은 액션, 어드벤처, 판타지, SF 장르의 영화들보다 문화할인율이 크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⁷⁾

우리가 전형적인 드라마 장르에 속하는 미국 영화라고 할 수 있는 <The Blind Side>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이 글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미국 내 흥행 성적과 전 세계 흥행 성적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 영화의 특성이 드라마

7) 사실 전통적 내러티브에 대한 의존도는 가능하면 줄이고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강조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는 문화할인율을 줄여 세계시장을 쉽게 공략하려는 할리우드 영화의 효과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전략일 것이다.

장르에 속하는 영화의 특성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지, 또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가 다른 장르의 영화와 다르게 문화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의 서사적, 문화적 특성

II.1. <블라인드 사이드> 수용에 있어서의 두 가지 불균형

<블라인드 사이드>⁸⁾는 존 리 헨콕John Lee Hancock이 감독하고, 산드라 블록Sandra Bullock, 제이 헤드Jae Head, 퀸튼 아론Quinton Aaron 등이 출연했으며, 워너브라더스가 배급한 영화이다. 미국에서는 2009년 11월 20일에 PG-13등급으로, 한국에서는 이듬해인 2010년 4월 15일 12세 이상 등급으로 개봉되었다. 상영시간은 2시간 6~10분이다. 박스오피스모조는 이 영화의 장르를 스포츠 드라마로, IMDB는 전기/드라마/스포츠로 표기하고 있다. 고아인 흑인 소년 마이클 오어가 백인 상류 계층인 투오이 가족을 만남으로써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나중에 유명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또한 2009년 아카데미상 두 개 부문 후보에 올라, 산드라 블록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영화는 성공한 그리고 잘 만들어진 영화다. 더구나 아카데미상 수상이라는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다. 2천 9백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31억 달러의 수입을 거두어들이는 제작비 대비 수익률이 이를 증명한다. 제작비 대비 수익률만을 생각하면, 2~3배에 그치는 일반적인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 셈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전체 수익에서 미국 외 국가에서의 흥행이 미친 영향은 무시할 만하다. 전체 수익에서 미국 내 수익이 82.7%를 차지하고, 미국 외에서의 수익은 17.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블라인드 사이드>는 미국 내 역대 흥행 상위 60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흥행은 249위이다. 더구나 미국과 문화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비슷하다

8) 이하 <The Blind Side>의 한국어 제목인 <블라인드 사이드>로 표기.

고 할 수 있는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영어권 국가들과 할리우드 영화에 종속되어 있는 중남미를 제외하면, 그 외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에서 얻은 수익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박스오피스모조가 역대 흥행 성적을 기준으로 분류한 상위 475편의 영화들 중에서 전체 수익 대비 국내 수익 비율이 가장 높은 영화가 바로 <블라인드 사이드>이다. 즉 역대 흥행 성적 상위 475편의 영화 가운데, 미국 외의 국가에서 가장 수익을 올리지 못한 영화가 <블라인드 사이드>인 것이다. 한국에서의 성적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제공하는 2010년 1월~12월 영화산업통계에 따르면 <블라인드 사이드>는 354,171명의 누적 관객 수, 2,602,192,000원의 누적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그 해 개봉된 전체 외국 영화 중에서 50위에 해당되는 성적을 거둔 셈이다.⁹⁾ 2010년이 영화 <아바타>의 돌풍이 불어 다른 영화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관객 수 35만은 결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는 성적이다. <블라인드 사이드>와 비슷한 성적을 기록한 영화들은 다음과 같다. <아스트로 보이-아톰의 귀환>, <익스펜더블>, <공자춘추전국시대>, <프롬 파리 워드 러브>, <파라노말 액티비티 2>, <킬러스>, <검우강호>, <가디언의 전설>, <베스트 키드>, <프레데터스> 등이 누적 관객 수 기준으로 각각 <블라인드 사이드> 앞과 뒤에 위치하는 다섯 편씩의 영화들이다. 몇몇 영화들은 개봉 전에 조명을 받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특별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그렇고 그런 영화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완성도의 측면에서 미국 외 국가의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전혀 갖지 못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예만 보더라도, 네이버 평점 9.29이며, 전체영화 가운데 46위이다.¹⁰⁾ 일반인들의 평도 매우 긍정적이다. 네이버 영화 사이트의 일반인 리뷰를 영화 개봉일로부터 차례대로 100개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95% 이상이었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은 5% 미만이었다.¹¹⁾ 또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의 70% 이상이 스토리에 집중되어 있다. 긍정적인 의견은 주로 스토리가 감동적이고 따뜻하며 가족

9) <http://www.kofic.or.kr/cms/58.do>.

10) <http://movie.naver.com/movie/bi/mi/point.nhn?code=71081>

11) <http://movie.naver.com/movie/bi/mi/review.nhn?code=71081&page=18>

애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며, 부정적인 의견은 스토리가 밋밋하고, 처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스토리 외에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를 보면, 이야기가 실화에 근거하기 때문에 감동적이라는 것이 약 20% 차지하고, 산드라 블록의 연기가 훌륭하고, 그녀가 연기한 엄마의 모습이 감동적이라는 의견이 13% 정도 된다. 특징적인 것은 “공화당원들이 좋아할만한 정말 미국적인 영화”, “흑인에 대한 시선과 편견이 바뀌는 영화”, “미국식 영화”라는 의견처럼 미국식 영화임을 강조하는 리뷰도 2% 정도 보인다는 점이다. 어쨌든 영화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호평을 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적어도 한국의 관객들에게는 <블라인드 사이드>는 좋은 영화임에 틀림없지만, 이러한 호평과 흥행 성적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블라인드 사이드>를 수용자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두 가지의 독특한 불균형이 보인다. 하나는, 4:1 정도 되는 미국 내 수익과 미국 외 수익의 비율이 보여주듯, 이 영화에 대한 미국 관객과 다른 국가들 관객의 온도차에 따른 불균형이다. 박스오피스모조 사이트의 통계가 증명하는 것처럼 이 부문 1위에 속하는 흔하지 않은 현상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 실제 흥행에 있어서의 불균형이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으나 실제 본 사람은 많지 않은, 평가와 흥행의 비례성이 결여된 현상이다. 물론 한 영화의 흥행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영화 내적, 외적 요소들이 작용된다. 흥행 부진을 단순히 한, 두 가지 요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또한 영화에 대한 네티즌의 평가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며, 일반적인 평가와 흥행이 비례해야 한다는 법칙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블라인드 사이드>는 완성도의 측면에서 흠 잡을 데 없는 영화이고, 미국에서는 압도적인 흥행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블라인드 사이드>는 가장 미국적인 영화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II.2. <블라인드 사이드>의 서사 구조 및 의미

영화의 줄거리를, 할리우드 영화의 전형적 구성인 3막에 따라, 핵심적인 사건 위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ACT 1 : 마이클 오어와 리 앤 투오이 가족의 만남

-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 받은 흑인 고아 마이클 오어가 뛰어난 신체적 조건으로 백인들이 주로 다니는 사립 미션 스쿨에 전학한다.
- 마이클은 성적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하고 매일 잘 곳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며,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 추수감사절 전 날 밤, 추운 날씨에 여름옷을 입고 잘 곳을 찾아다니는 마이클을 본 리 앤이 자기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를 집으로 데려간다.
- 마이클은 리 앤 가족과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낸다.

2. ACT 2 : 마이클 오어가 한편으로는 투오이 가족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식축구선수로 인정받는다.

- 리 앤이 남편과 아이들의 동의를 얻어 마이클 오어를 집에서 같이 기거하도록 한다.
- 투오이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마이클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성적이 향상되고, 학교 미식축구부에서 재능을 보인다.
- 리 앤은 마이클의 훈련을 참관하던 중, 마이클의 뛰어난 보호본능을 일깨운다. 신체적 조건이 월등했던 마이클은 가족을 보호하듯, 팀을 보호하듯 훈련과 경기에 임해 탁월한 성적을 올린다.
- 리 앤은 흑인에 대한 친구들의 편견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클의 친모를 찾아 동의를 얻은 뒤 마이클을 정식으로 입양한다.
- 운전면허를 딴 마이클이 교통사고를 내지만 자신의 희생은 개의치 않고 동생을 보호한다.
- 실력이 뛰어난 마이클에게 각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마이클은 양부모인 투오이 부부가 다녔던 미시시피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한다.

3. ACT 3 : 마이클 오어와 리 앤 사이의 오해와 화해

- 미시시피 대학 진학에 대한 체육회 조사원이 마이클의 결정에 대한 진의를 조사하고, 마이클은 리 앤이 모교인 미시시피 대학을 위해 자기를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간다.

- 어린 시절 어울리던 흑인들 사이로 돌아갔던 마이클이 다시 나타나, 체육회 조사원에게 대학 진학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스스로 결정한 것임을 밝힌다.
- 마이클이 대학에 입학하고 기숙사에 입사한다.

하나의 이야기는 최초 상태와 마지막 상태의 비교로 간략하게 요약될 수 있다. <블라인드 사이드>의 최초 상태는 고아와 마찬가지로 거구의 마이클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운동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노숙자처럼 사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리 앤은 전형적인 남부 상류층 여성으로 남편, 두 아이들과 함께 아무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는 디자이너이다. 영화의 결말 부분은 미식축구선수로 각광을 받은 마이클이 가족들의 응원과 배움을 받으며 미시시피 대학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 입사를 하고, 리 앤은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시퀀스로 구성된다. 마이클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때, 이야기의 흐름은 고아, 미래 없음, 외톨이, 부적응 학생, 노숙 등으로 설명되는 상태와 가정, 보장된 미래, 희망, 스포츠 스타의 가능성 등으로 규정되는 상태의 두 극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사건들로 구성된다. 이 사건들은 크게 둘로 나뉜다.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과정과 투오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연관성이 없지만, <블라인드 사이드>에서는 이 두 개의 과정이 마치 하나처럼 따로 분리될 수 없다. 마이클이 미식축구선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리 앤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며, 가족이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 미식축구선수로서의 미래도 사라진다. 또한 그가 훌륭한 미식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단순히 성공하기 위한 개인적 욕망의 발현이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인 장점인 보호본능을 일깨워 준 리 앤 및 자기를 일원으로 받아들인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읽힐 수 있다. 결국 이야기의 핵심적인 축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며, 그것은 가족의 관계 맺기 혹은 가족 되기 일 것이다. 이야기를 여는 ACT 1의 중심 사건이 마이클과 리 앤의 만남인 것은 그런 점에서 당연하다. 두 사람의 만남은 관계 맺기의 시작이다. 그렇지만 마이클과 리 앤 혹은 투오이 가족의 관계가 지속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두드러져 보이기 때문이다. 흑인과 백인, 하류층과 상류층, 결혼 가정과 극히 정상적인 가정, 교육 수준의

차이 등이 이들의 가족 되기가 쉽지 않음을,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한다.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는 리 앤이 학교 체육관에서 자려는 마이클에게 일시적으로 잘 곳을 마련해주는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동질성보다는 이질성, 그것도 극단적인 이질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두 사람이, 일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매우 특별한 사건 없이,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오프닝 시퀀스 바로 다음에 이 영화가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효과적인 서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성을 벗어나는 과도한 허구라고 판단하고 이야기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도, 상식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의 실현을 통해 감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CT 2를 구성하는 사건들은 관계의 진전이다. 그 진전은 똑 같은 템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야기가 재미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감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장애와 굴곡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와 굴곡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유형의 갈등을 구성하며, 이러한 갈등 요소들과 그 극복의 방식이 방향성을 가질 때 이야기의 주제를 형성할 수 있다.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관계의 유지와 진전을 방해하는 것은 기실 앞서 말한 인종적, 사회적 이질성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이질성에 기반을 둔 편견과 고정관념이다. 주위의 시선들로 대표되는 편견과 고정관념은 ACT 2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다. 마이클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리 앤의 딸이 학교에서 마이클과 같이 공부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학생들, 마이클과 한 집에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리 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리 앤의 친한 친구들이 이를 대표한다. 마이클과 리 앤 가족의 관계가 진전되면 될수록 장애 요소의 저항력도 점점 커진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장면에서처럼 처음에는 단순한 시선의 문제이기에 무시할 수 있지만, 리 앤이 마이클을 정식으로 입양을 하고 엄마의 역할을 할 때에는 친구들과 낯선 언쟁을 벌이기도 해야 한다. 자칫하면 새로운 관계를 위해 기존의 관계를 절연해야 하는 상황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계속 진전된다. 마이클은 입양절차를 통해 가족이 되고, 고등학교 미식축구선수 유망주가 된다.

관계 맺기에 대한 결정적인 장애는 ACT 3에서 보인다. 이른바 위기와 절

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마이클의 미시시피 대학 진학이 자신의 모교를 위한 리 앤의 이기적 동기라고 의심하는 체육회의 조사 사건이다. 마이클은 조사 후에 리 앤의 동기를 의심하게 되고, 투오이 가족을 떠나 과거의 친구들에게 돌아간다. 지금까지의 모든 행위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순간이며,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계 맺기에 종지부를 찍는 최종적 관문이기도 하다. 영화 전체를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 영화의 진정한 위기를 구성하기도 하는 부분이다. 위기와 절정을 구성하는 에피소드가 입양이나 좋은 대학에 스카우트 되는 사건들로 구성되지 않고, 체육회 조사의 사건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영화의 주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리 앤이 친모의 동의를 얻어 마이클을 양자로 입적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이고, 마이클에게 유명 대학들의 관계자가 찾아와 입학할 권유하는 것은 개인적 성공에 대한 강조이다. <블라인드 사이드>는 이런 요소들을 강조하지 않는다. 체육회의 조사는 행정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이나 개인적인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 맺기가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하고 상호 간에 확신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 소외된 사람에게 베푸는 시혜적 성격이나 동정심의 결과가 아니고, 양부모가 애착을 갖고 있는 모교 미식 축구부를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클과 투오이 가족이 한 가족을 이룰 만큼 진정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다.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조사위원회에 대한 마이클의 확신에 찬 대답이다. 리 앤 가족과 연락을 끊고 과거 친구들에게 돌아갔던 마이클은 다시 나타나고, 두 번째 조사에서 미시시피 대학을 선택한 것이 자기 자신이며, 그 이유는 가족이 그 학교를 다니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밝힌다. 그의 이 말은 자신이 이제 투오이 가족의 전통에 속해 있고, 그 전통이 자신의 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는 가족 없는 자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다.

<블라인드 사이드>는 결국 가족 되기를 주제로 한 영화다. 리 앤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 마이클의 입장에서 보면 출생이 아니라 후천적 인연과 노력에 의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가족에게 있

어서는 혈연, 사회문화적 동질성, 호적, 성공 여부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신뢰,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에의 편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영화의 서사구조가 암시한다.

II.3. <블라인드 사이드>에 함유된 미국 고유의 문화

가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며, 가족이 영화의 소재 및 주제가 되는 경우가 드문 것도 아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는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보이는 가족의 개념 또한 다른 나라의 가족의 개념과 당연히 다를 수 있다. 영화에 대한 평가와 흥행의 불균형, 미국 내 흥행과 미국 외 국가 흥행의 불일치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반적, 상식적, 관습적 개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현실감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영화의 핵심 인물은 리 앤과 마이클이다. 둘의 만남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둘 사이의 오해가 풀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물론 리 앤의 남편과 아이들 모두 그녀의 결정을 도와주고, 마이클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만,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는 리 앤과 마이클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사구조 뿐 아니라 영화의 포스터에서도 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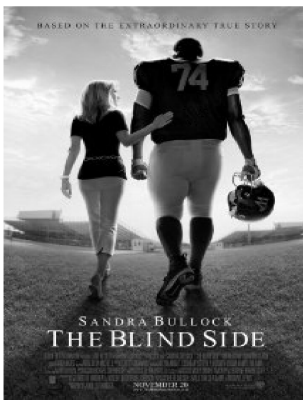


그림 1. <블라인드 사이드> 미국 포스터



그림 2. <블라인드 사이드> 한국 포스터

영화의 포스터는 미식축구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리 앤과 마이클의 뒷모습을 보여준다. (한국 포스터는 미국 포스터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글자만 한글로 번역해 놓았다.) 이 포스터는 영화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리 앤과 마이클의 시각적 대비와 동질성이다. 거구의 남성과 왜소해 보이는 여성은 대비되지만, 이 대비는 녹색 상의와 흰색 바지라는 동질성에 의해서 통일성을 갖는다. 또한 여성이 남성의 등에 손을 얹고 말을 건네는 것 같은 모습은 마치 코치 또는 보호자가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를 격려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또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둘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암시한다. 포스터에서는 신체적 특성의 대비만 강조되지만, 사실 리 앤과 마이클은, 앞서도 살펴보았듯, 특히 영화 초반에 여러 측면에서 대비된다. 여성/남성, 중년/청소년, 백인/흑인, 고학력/고교생, 상류층/하류층, 안정/불안, 전문직/학생, 적극적/소심함, 주도적/수동적, 보호자/피보호자 등의 대비이다.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 육체적, 인종적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두 인물의 조합이기도 하다. 포스터에서 마이클은 시합에 출전하는 선수의 복장이고, 리 앤은 평상복이지만 마이클의 유니폼과 동일한 색의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은 두 인물이 같은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역할이 나뉘어져 있음을 암시한다. 역할이 나뉘어져 있다고 그 역할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선수는 선수이고, 코치는 코치인 것이다. 역할의 분담은 협력과 신뢰 그리고 평등을 전제한다. 이 부분은 영화의 이야기되는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초반에 마이클은 피보호자이고, 리 앤은 보호자로 기능한다. 리 앤은 마이클을 집에서 재워주고, 옷 가게에서 옷을 사주며, 공부를 도와주고, 미식축구 연습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한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마이클은 동생과 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갖게 된다. 마이클은 피보호자에서 타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독립된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질성과 그 이질성을 넘어서는 동질성, 그리고 협력, 신뢰, 평등에 의한 가족의 재구성은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이상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무엇보다도 혈연을 중시하고, 사회가 아무리 변했

다고 해도 수백 년 지속된 효 사상, 어른에 대한 공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한국의 정서에는 특히 그렇다. 더구나 인종문제라는, 다문화사회인 미국이 안고 가는 문제는 한국의 관객에게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을지언정 정서적으로는 아직 실감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영화를 볼 때 진정한 공감은 상당한 부분 개인적 경험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관객은 그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관객보다 영화의 내용에 대해 공감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축소될 수는 없다. 동일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일상의 문제에 있어서 동일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제시하는 가족은 한국의 관객에게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마음으로부터의 공감은 쉽지 않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한국의 관객에게 있어 <블라인드 사이드>는 감동적이기는 한데, 개인의 경험과 공명하는 진정한 울림은 느끼기 어려운 영화인 것이다. 이것은 영화의 내용을 표현하는 여러 장면에서 확인된다.

영화에는 한 가족임을 강조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온다. 예를 들어 마이클이 투우이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 가족사진을 찍어 크리스마스카드로 활용하는 장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통학용 차를 사주는 장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국의 영화에서는 흔하게 보이는 모습이지만, 사실 한국의 영화에서는 낯선 장면이다. 또한 마이클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체육회 조사 에피소드에서도 보이다시피, 비록 한 가족이더라도,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한다는,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상황은 적어도 한국 관객에게는 상상이 어려운 미국적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의 제목과 다른 소재들도 예외가 아니다. 쿼터백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를 의미하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미식축구용어의 제목도 미국인에게는 친숙하지만, 한국의 관객은 굳이 사전을 찾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다.¹²⁾ 또한 미식축구 자체도 한국의 선호 스포츠와는 거리가 먼 미국식 스포츠이며, 학교

12)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포스터와 제목을 한국에서도 번역만 해서 사용한 것은 문화할인을 더 크게 만들어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미국적배의 한계가 아닌가 여겨진다.

운동부원의 자격을 포함한 교육제도, 대학 간 경쟁 관계, 부모가 졸업한 학교를 지원하는 이유 등은 정서적 경험으로 공감되는 현상들이 아니라 추론과 비교로 이해하는 현상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리하자면 <블라인드 사이드>는 더 이상 친숙할 수 없고 더 이상 일상적일 수 없는 가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극히 일상적이고 지극히 친숙한 것이기에 관객의 경험과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더 많다. 관객의 눈에 비치는 화면 속 모습에서부터 작은 에피소드들 그리고 이야기되는 내용에 함유된 가치관까지 기실 <블라인드 사이드>는 미국의 일상 또는 그러하다고 생각되는 일상의 전형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인에게는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이 가족임을 확인하는 생활이지만, 다른 문화권의 관객들에게는 이국적인 풍경일 가능성이 높다. 미식축구도, 그 명칭이 암시하듯, 매우 미국적인 스포츠이다. 입양이나 학교 또는 학원스포츠 시스템도 미국을 벗어나면 상이한 전통이나 시각이 존재하는 제도이다. 흑백의 인종 화합, 선천적 혈연성보다 후천적 관계를 강조하는 가족의 개념 또한 한국 같은 국가의 관객들에게는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다. 더구나 대학 진학의 결정이 양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선택임을 조사위원회에서 증명해야 하는 상황 앞에서, 즉 영화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위기-절정의 상황에서 미국적 제도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은 이성적인 접근을 강요당하는 일종의 아이러니까지 발생한다. 결국 <블라인드 사이드>는 배경, 소재, 작중인물, 주제 등 영화의 내용을 이루는 거의 모든 요소들이 미국의 일상생활에 깊이 뿌리박은 영화이다. 그렇기에 미국의 관객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미국과는 다른 역사와 전통 속에서 사는 국가의 관객들, 영화에서 보이는 일상과 개인의 일상 사이에 문화적 간격이 있는 관객들에게는 그 감동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드라마 장르의 미국 영화가 SF, 판타지, 어드벤처 등의 영화보다 문화할인율이 평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III. 드라마 장르 영화의 구조적 특성 및 문화 상관성

최근 5년 간 미국에서 제작, 보급된 영화들 가운데 <블라인드 사이드>는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둔 드라마 장르의 영화이다. 또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미국적인 영화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블라인드 사이드>는 드라마 장르 미국 영화의 최신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영화에서 추출될 수 있는 이야기의 구조적 특성이 다른 장르의 영화 구분되는 미국 드라마 장르 영화의 특성에 가깝다고 해도 전혀 근거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지나친 일반화 오류의 가능성도 있고, 지금까지의 제작된 동일 또는 다른 장르의 다른 대표작과의 세밀하고 충분한 비교도 필요하다. 하지만 각 작품의 개별적 특성이 배제된 구조적 차원에서는 <블라인드 사이드>의 유형이 적어도 표준에 수렴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드라마 장르의 미국 영화는 동일한 장르로 분류되는 다른 국가, 다른 문화권의 영화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 서로 다른 개별 영화들을 드라마 장르로 분류하게 만드는 공통점은 과연 무엇이며, 문화권이 다를 때 이 공통점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기반으로 <블라인드 사이드>의 구조적 특성을 정리할 것이며, 이것을 유사한 구성을 보이는 또 다른 미국영화 <그랜 토리노Gran Torino>¹³⁾ 그리고 영국 영화 <킹스 스피치The King's Speech>¹⁴⁾와 비교함으로써, 드라마 장르의 공통점과 문화적 상관성을 예시하고자 한다.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이야기의 출발은 마이클과 리 앤의 만남에서부터이다. 이들의 만남은 가족의 관계로 발전하고, 이 관계를 맺는 과정 자체가 스토리의 핵심 축을 이룬다.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두 인물의 만남에 이은 관계 맺기다. 이것은 특정한 영웅적 인물의 임무 완수,

13) 2008년 작.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주연. 전 세계 역대 흥행 순위 305위, 미국 내 역대 흥행 순위 227위, 2008년 흥행 순위 12위.

14) 2010년 작. 톰 후퍼 감독, 콜린 퍼스와 제프리 러쉬가 주연이고, 201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 감독, 남우주연, 각본의 4개 상을 수상했다. 전 세계 역대 흥행은 140위이고, 미국 내 역대 흥행 순위는 262위이다.

세계 평화의 공헌, 절대 악과의 투쟁 등, 액션, 어드벤처, SF 등의 내러티브와는 차별되는 점이며, 로맨스 장르와는 굳이 남녀 사이의 애정이 아니라는 차이점이 있다. 두 작중인물을 중심으로 한 관계 맺기는 필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수반하며, 작중인물의 긍정적인 변화는 그 인물이 결핍되고 미숙한 점이 있어야 함을 전제한다. 마이클이 학습 부진아, 외톨이에서 리 앤 가족과 만나면서 스포츠 스타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러하다. 즉 두 작중인물의 만남은 결핍되고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발점이 되고, 이 둘의 관계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완성된다. 두 인물의 관계는 조력자-주체, 혹은 상호 조력자이면서 주체의 관계로 규정된다. 만남과 관계 맺기를 통한 결핍 요소의 충족은 <킹스 스피치>와 <그랜 토리노>에서도 이야기되는 내용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그랜 토리노>에서는 보수적이고 백인우월주의자인 노인과 겁 많은 이웃집 동양 소년의 만남이 이야기의 시발점이다. 노인은 소년과 친해지면서 백인우월주의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타문화에 대한 관용에 눈을 뜨고, 결국은 숭고한 희생을 하며, 이와 동시에 소년은 노인과 만나면서 성장하게 된다. 노인과 소년, 백인과 동양인이라는 세대, 인종 면에서의 대조적 이질성이 유대감으로 변화된다는 측면에서, 또 노인이 소년의 연애문제나 진로문제를 상담해주는 장면에서 보이듯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랜 토리노>는 <블라인드 사이드>와 유사한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킹스 스피치>도 두 인물의 만남에서 이야기가 출발한다. 2차 세계대전 직전, 왕위를 포기한 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 조지 6세는 말을 더듬는 결핍 요소를 가지고 있다.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고, 영국민에 대한 연설을 해야 하는 왕에게 말더듬은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하다. 이 결핍 요소는 라이 오넬 로그라는 언어 치료사를 만남으로써 마침내 극복된다. 이 영화에서 두 작중인물의 만남은 왕과 평민이라는 이질성을 형성하며, 왕의 콤플렉스를 혁신적 방법으로 극복하게 도와주는 로그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이 둘의 관계는 환자-치료자 또는 왕-국민의 외형적 관계에서 출발하지만 중국에는 평등에 기초한 친구의 관계로 발전한다. 마이클과 리 앤의 관계를 연상시키는 구조이다.

일핏 잘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 대립적 작중인물들의 만남 그리고 이 만남

에 이어지는 결핍 요소의 극복은 이 세 편의 영화뿐 아니라 대부분의 드라마 장르 영화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인가 약점을 갖고 있다든지 미숙한 작중인물이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 혹은 상호간에 도움을 주어 이를 극복하는 성장 또는 성숙의 과정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드라마 장르의 영화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만남-결핍-해소가 특별히 미국적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소(actant)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개별적, 구체적 특성을 덧붙여지는 방식은 국가마다 사뭇 다를 수 있다. 다른 장르의 영화와는 다르게, 드라마 장르 영화의 또 다른 특징은 현실 반영이기 때문이다.

드라마 장르 영화의 스토리는 구체적인 현실세계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소재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블록버스터 영화가 주로 가상, 환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초시간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드라마 장르 영화는, 비록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루지만, 그 문제는 대부분 시공간적 배경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의 배경에 대한 선이해가 필연적이다. 미국 남부의 멤피스를 배경으로 한 <블라인드 사이드>의 올바른 수용을 위해서는 입양, 교육, 인종 등 미국사회가 가진 일반적 문제뿐 아니라 남부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미시시피 대학을 비롯한 대학들 간의 라이벌 관계, 리 앤과 같은 남부 여인들의 일상생활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 중서부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그랜 토리노>에는 미국 사회문제의 화두인 이민자, 문화다양성, 가정과 사회의 폭력 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실 반영성의 문제는 드라마 장르의 영화가 관객의 전폭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반영한다. 생소한 배경,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이슈들, 낯선 행동과 사고방식 등이 결국 드라마 장르의 영화가 애초에 제작된 국가의 문화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는 요소들이다. 1930년대 영국 왕실을 소재로 한 <킹스 스피치>는 이와는 조금 다르다. 이 영화는 역사적 현실을 구체적인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이 배경은 시대적 괴리에 의해, 그리고 영국 왕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일반 관객의 일장에서 유리되어 있다. 반면에 주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일반적이다.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가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더듬은 특별한 사회, 특별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사회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영화에서는 다루어지는 소재와 주제 자체가 일반적인 관객의 일상적 경험과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것이다. <킹스 스피치>가 드라마 영화들 가운데 드물게 전 세계 역대 흥행 순위가 미국 내 역대 흥행 순위보다 월등히 높고, 미국 외 흥행수입이 미국 내 흥행수입의 2배에 달하는 것은 이 영화가 단지 영국 영화이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IV. 결론

시대에 따라 지배적인 서사양식이 있다. 19세기와 20세기가 소설의 전성시대였다면, 이제는 영화가 그 자리를 대체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화는 기존의 그 어떤 지배적 서사양식보다 언어에 대한 의존성이 떨어진다. 시각적인 요소에 많은 부분 의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는 동시에 수많은 수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장르예술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초문화적으로, 초국가적으로 소비되기 쉬운 양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다양한 하부장르들 중에서 코미디와 드라마는 생산국의 문화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다른 문화권의 관객들에게는 문화할인율이 상대적으로 큰 장르인 것이다.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할리우드는 액션, 어드벤처, 판타지, SF 등의 블록버스터 영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장르의 영화들이 문화할인율이 낮기 때문이다. 장르에 따른 문화할인율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에서 기인하는가? 우리는 <블라인드 사이드>를 대상으로 이러한 질문에 접근하였다. 이 영화는 전체 흥행수입 대비 미국 외 흥행수입이 역대 흥행수입 상위 475편 가운데 1위인 영화이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반응과 미국 외 국가에서의 반응의 편차가 큰 영화, 다시 말해서 전형적으로 미국적인 영화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만한 영화이다. 또한 <블라인드 사이드>는 최근 5년 간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들 중 최고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드라마 장르의 영화다. 이 영화를 규정하는 키워드 두 개는 ‘미국적 영화’ 그리고 ‘드라마 장르’이다. 행위소

차원에서 <블라인드 사이드>는 여느 드라마 장르의 영화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마이클과 리 앤이라는, 모든 면에서 상반되는 두 인물이 주체와 조력자로 만나 결핍 또는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성숙, 성공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 구조는 <킹스 스피치>나 <그랜 토리노> 또는 다른 드라마 장르의 영화에서도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라마 장르 영화는 다른 장르의 영화와 비교해서 현실 반영성이 상당히 큰 장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블라인드 사이드>는 미국적이다. 장애 또는 결핍의 해소나 충족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미국 문화의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화의 소재와 주제로 표현된다. 인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입양, 가족의 개념, 스포츠, 교육 제도, 진학 등의 분야에서 미국 사회의 일상을 구성하는 문제들이 화면과 스토리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블라인드 사이드>가 불리일으키는 진정한 공감은 일상적 경험을 공유하는 관객층에게 제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드라마 장르의 영화가 문화할인율이 높을 가능성이 많은 이유이다.

❖ 참고 문헌

<블라인드 사이드>, DVD, 태원엔터테인먼트, 2006.

<그랜 토리노>, DVD, 워너브라더스, 2011.

<킹스 스피치>, DVD, 버즈픽처스, 2011.

<http://www.boxofficemojo.com/alltime/world/>.

<http://www.imdb.com/>.

<http://www.kofic.or.kr/cms/58.do>.

<http://movie.naver.com/movie/bi/mi/point.nhn?code=71081>.

서성식, 「할리우드 장르영화의 진화 관점에서 본 영화 아바타」, 『영상영어교육』(STEM journal), 11/2, 2010, pp.97-116.

- 이양환, 장병희, 박경우, 「국가 간 영화홍행요인 비교를 위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7, 2007. pp.185-222.
- 이용관, 김지석, 『할리우드: 할리우드 영화의 산업과 이데올로기』, 서울, 제3문학사, 1992.
- 이태훈, 「드라마 장르 필름의 내러티브 구조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 작법 연구」, 『기초조형 연구』, 7/2, 2006, pp.385-393.
- 최성민, 「장르 문학의 현실과 지평」, 『구보학보』, vol.6, 2011, pp.261-269.
- 황세원, 「블라인드 사이드」, 『새가정』, vol.640, 2012, pp.48-51
- Belton, John, 이형식 역, 『미국영화 미국문화』, 서울, 경문사, 2008.

❖ ABSTRACT

The cultural characteristic of American film (genre drama)
in <Blind Side>

Han, Yong Taek · Woo, Jung Gu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American film (genre drama) through the analysis of <Blind Side>, which merits our attention because the proportion of domestic gross earnings to foreign gross earnings is four to one. It means that the cultural discount rate of this film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 films which belong to the other genres, for example adventure, action, fantasy, SF etc. And it would be correct to say that this film is typically american. What is the reason of this difference of cultural discount rate? And what allows this film to be defined as a typical American film. The analysis of <Blind Side> shows that the difference doesn't result from the actant structure. In fact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is film is similar to the other films of drama genre like <Gran Torino> or <The King's Speech>: the common structure of drama genre is characterized by an encounter of *sujet* and *adjuvant* and the progress of their relationship. But the drama is a genre in which the reflection of the actualities is important as compared with other genres. In that sense the story of <Blind Side> is based upon the American cultural characteristics. Because the process that realize the progress of relationship between two protagonists is typically american such as race problem, adoption system, concept of family, system of education and going to college etc. As a result it is possible that <Blind Side> move less the worldwide spectators than the American spectators.

Key Words

American film, genre drama, Blind Side, cultural discount rate, American cultural characteristic

미국 영화, 드라마 장르, 블라인드 사이드, 문화할인율, 미국적 문화 특성

논문접수일: 2012. 02. 10.

심사완료일: 2012. 03. 15.

게재확정일: 2012. 03. 16.